

홀트소식

SPRING 2024 VOL.212



홀트소식

www.holt.or.kr



봄 이야기

홀트일산요양원에서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표수집(우리들의 표정을 수집합니다)'을 진행합니다. 개성 넘치는 표정들 가운데 봄꽃처럼 환한 미소를 가진 김지영, 고은아 학생이 이번 봄호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관련기사 18-20쪽)



Contents

아동·청소년복지

- 04 “지난겨울, 우리는 방방곡곡으로 떠났다~!”
- 06 운명처럼 다가온 ‘웃’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다
- 08 윤경이의 단어, '안식처'

한부모가족복지

- 10 그녀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성장에 박수를
- 13 “똥쳐야 산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엄마들
- 16 'H!-Change'로 봄처럼 새롭게 피어날 엄마의 첫걸음

장애인복지

- 18 개성 만점 '우리들의 표정을 수집합니다'
- 21 장애인 스포츠의 꽃, 휠체어농구의 주역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 24 발달장애인과 이웃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 발달축제
- 26 장애인 일상 속 여행의 기쁨을 전하는 '꿈의 버스'

지역사회복지

- 28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체험형 환경교육 '다시, 그린(green) 지구'
- 30 아름답고 따뜻한 요리로 워킹맘들이 마을을 누벼요

국제개발협력

- 32 네팔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보호자, 친구가 되어주는 홀트드림센터

나눔스토리

- 34 착한 가게 사장님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홀트패밀리#'
- 36 팬들의 나눔활동으로 더욱 확산되는 팬덤 기부문화
- 38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름다운 달리기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 40 어머니의 가장 아름답고 빛났던 순간을 본받고자
- 42 우리 사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HOLT NEWS

- 48 2023년 운영결산보고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12호-계간 발행일 | 2024년 4월 25일 발행인 | 김정오 편집인 | 신미숙 발행처 | 나눔마케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 www.holt.or.kr 후원문의 | 02-331-7073-6 후원계좌 |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r@holt.or.kr 디자인 | 일투디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사 정용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스티브 모리스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 사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 (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미추홀 032)548-160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02)331-7040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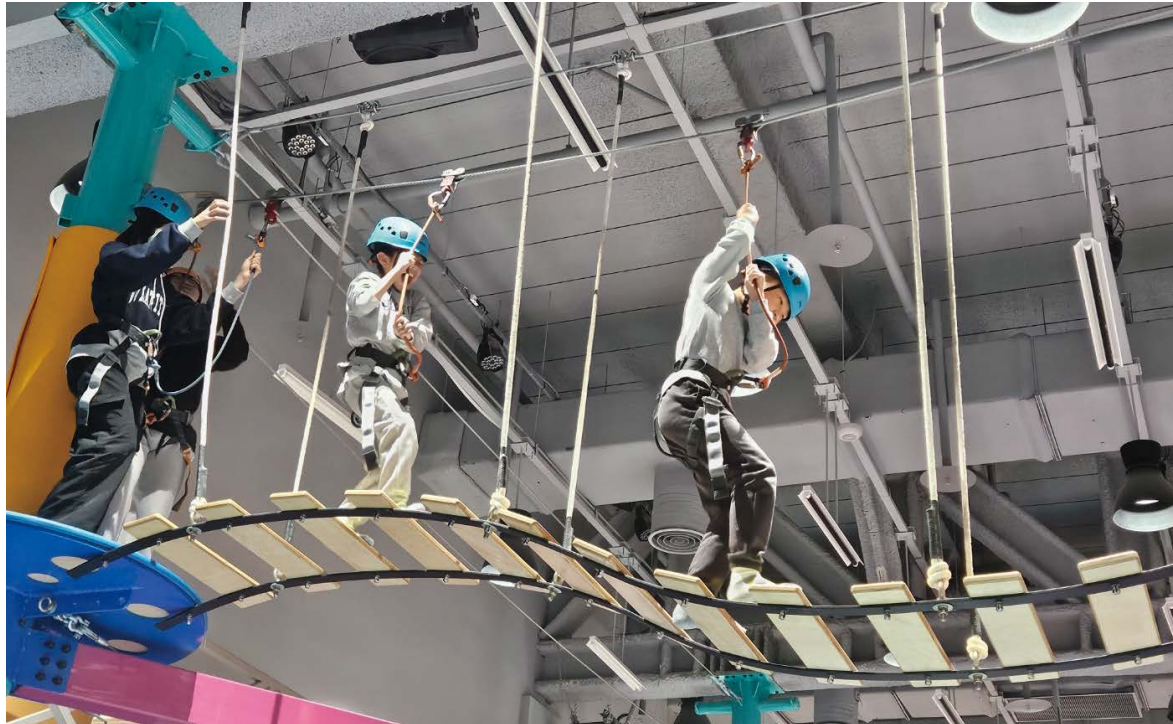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함께 지켜주세요

'좋은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신'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원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신 전환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주세요

“지난겨울, 우리는 방방곡곡으로 떠났다~!”

아동복지시설 스포츠 테마파크 체험 지원사업 ‘방방곡곡’ 참여 후기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왜 그렇게 밖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뛰어놀다보면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음껏 소리 지르고 흥겹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곳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에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IS동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스포츠 테마파크 방문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돌아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 센터에 바운스 트램폴린 체험을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트램폴린 체험을 해보니 짜증스러웠던 기억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양한 놀이기구와 게임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산 소재 지역아동센터 최○은



다른 친구들 통해서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가 재미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센터에서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역시 너무 재미있었어요. 센터 동생들이랑 마음껏 뛰어놀고 맛있는 간식도 먹었어요. 저희 센터에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뛰고 즐겁게 웃다가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김○언

이번에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를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번지점프 할 때 무서웠지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서 용기를 내보았어요. 아! 그리고 탐험대 체험도 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놀이기구를 타서 좋았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소재 지역아동센터 정○은

“선생님 놀러 가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이 놀러 가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당장 야외활동을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방방곡곡 사업에 선정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를 처음 가본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너무 재미있었다며 또 가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순히 ‘방방이’만 있는 놀이센터가 아니라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더 재미있고 신났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면서도 흥미로운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소재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 스포츠 테마파크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아동복지시설 스포츠 테마파크 체험 지원사업 ‘방방곡곡’은 총 16개 아동복지시설과 354명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에 힘썼습니다. 방방곡곡에 참여한 아이들은 99%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기며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힘차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백솔

운명처럼 다가온 ‘옷’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다

‘런런 챌린지’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룬 정승민 청년의 성장 분투기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로 4년째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의 지원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룬 스물세 살 정승민 청년을 만나 꿈을 이루게 된 사연, 현재의 삶과 미래의 계획,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후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옷’을 꿈꾸다

처음으로 옷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하루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 밤, 같은 방에 있는 형이 멋진 스웨터와 슬랙스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들이 “이 옷 멋있다”며 말을 걸어줬어요. 자신감 없고 늘 우울한 성격이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과 말하는 게 재밌어졌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특히 시설 친구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면서 용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운명처럼 다가온 런런 챌린지

스무 살이 되어 컴퓨터디자인과에 진학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미술을 배워볼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던 제가 런런 챌린지를 통해 패션 디자인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선 굵기부터 시작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스케치는 어떻게 하고 패턴은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는 데 2년이 걸렸어요. 런런 챌린지 덕분에 교육비 걱정 없이 학원 다니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도 하루하루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고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저에게 기회를 준 런런 챌린지와와의 만남은 운명인 것 같아요.

꿈이 현실로 이뤄졌던 순간

런런 챌린지 지원을 받고 나서 작년 12월, 감사하게도 코오롱 FnC의 업사이클링 패션브랜드 RE:CODE MoL 부서의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패션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인턴의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꿈의 직장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특히 MoL 브랜드는 제가 꿈꾸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옷들을 하나씩 뜯어보며 공부도 하고 그 조각을 이어붙여 다른 옷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옷을 만드는 직업이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출발이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앞에 서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꾀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우고 나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지금은 일본의 패션 디자인이나

패션철학이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만들고 입고 싶은 옷들을 구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머지않은 미래에 나의 브랜드를 갖고 시설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맞춤형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순간에도 ‘꿈’을 놓지 마세요!

스무 살에 대학을 가자마자 시설에서 퇴소했는데, 그때 제 꿈과 목표를 의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이 자립을 앞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힘들고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미루거나 자신의 꿈을 의심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저한테 런런 챌린지가 다가왔듯 그 꿈을 이룰 디딤돌이 되어주는 곳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꿈을 위해 탐색하고 맘을 흘렸던 경험들이 무엇보다 귀중한 자산이 되어줄 것이고, 뒤돌아봤을 때 저처럼 꿈을 이룬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학업이든 취업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도전 중인 후배들에게 두 가지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첫째는 꼭 자기소개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뭘 써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다르게 생각해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탐색해보세요. 그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둘째는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스쳐지나가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겁먹지 말고 나 역시 주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글 아동복지팀 이재영

윤경이의 단어, '안식처'

자립준비청년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에세이집 《나의 단어》, 첫 번째 이야기

《나의 단어》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의 활동 결과물로 제작된 에세이집입니다.

5명(김남중·김윤경·박태양·안준·이다원)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위드유 커뮤니티를 통해 에세이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단어를 4가지씩 선정해 자기만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경험, 꿈과 다짐이 담긴 글들을 작성했습니다.

그 글들 중 감동을 주는 에세이를 하나씩 뽑아 앞으로 5회에 걸쳐 <홀트소식>에 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희망찬 미래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 편집자주



Essay 01



일곱 살 무렵, 나의 안식처는 이불 안 '빈 공간'이었다. 책상에 이불을 깔고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안식처가 만들어지는데, 나의 공간에 동생을 초대해 멋진 식사를 제공하고, 비밀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거미집에 코딱지를 넣어두었던 일, 옆집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랑 놀고 온 일과 같은 은밀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깔깔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밥상 가지고 뛰어나는 할머니의 큰 호통 소리가 들리면 슬며시 기어나와 이불을 개며 나의 안식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노름하는 날이면 더 신나게 우리의 안식처를 즐겼다. 그런 날은 더 큰 상을 펼치고 더 크고 폭신한 이불을 깔았다. 동생과 누룽지를 나눠 먹고, 엄마가 집을 떠날 때 두고 간 원피스를 입으며 공주 놀이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기차길 옆 구멍가게에 다녀온다며 밥 잘 차려먹으라는 말을 하고 나갔다. 어김없이 우리의 안식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급하게 집으로 왔고 이불을 치울 새도 없이 잔뜩 찌푸린 얼굴의 아빠도 들어왔다. 아빠는 매서운 눈으로 할머니를 노려보며 “망할 노인네가 노름으로 자식 인생 망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무서운 아빠 밑에서 할머니가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이불 밖으로 나와 아빠에게 마구 휘둘리는 할머니를 안고 같이 빌었다. “아빠 그만해주세요.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는 우리 부락 때문이었는지, 화가 사그라들어서였는지 아빠는 때리는 걸 멈췄다. 대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망가트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안식처도 그렇게 망가졌다.

열두 살이 됐을 때, 아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시설로 가게 되었지만, 나의 안식처는 아빠가 망가트린 그날에 멈춰 있었다. 함께 살게 된 아이들의 시선에 '이방인 세 자매'는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특히 우리는 세 자매 중 한 명이라도 누군가와 싸움이 나면 모두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힘을

“내가 만든 책상 앞에 앉아 오래 사색하고, 내가 좋아하는 향을 피우고, 읽고 싶은 책을 침대 머리맡에 쌓아놓으며 하루, 한 달, 한 해가 지났다. 집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흔적과 얼룩이 남아 마침내 내 집은 나를 표현하는 안식처가 되었다.”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눈엣가시였다. 한바탕 싸움을 끝낸 어느 날, 원장님은 언니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 세 자매가 다른 아이들의 뒤통까지 빼앗아 여기서 사는 거니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아이가 원장님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고, 우리는 매일 옷방에서 증오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갔다. 시설을 나온 후로는 안식처는 커녕 오래 머물 공간도 없어 부랑자처럼 박스 몇 개를 들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공간의 부재는 생각보다 큰 공허로 다가왔다. 명절이 되어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집을 쌀 때면, 나는 그 공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에게 돌아갈 고향도, 집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내는 공간에 몸을 날 뿔이였다. 남들에게는 찬란하고 빛나는 스무 살이 내겐 어둡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안식처는 캄캄하고 외로울 뿐이었다.

일 년 뒤,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 쉽

리 잠도 오지 않았다. 늘 남의 공간을 빌려 쓰는 것 같아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이 집을 나의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들고, 나의 취향이 담긴 가구를 만들어 놓아두었다.

이젠 나의 공간에서 어린 날의 기억처럼 친구도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호사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깔깔 웃으며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집에 있는 내 옷들을 친구에게 입히며 패션쇼를 벌이기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굴레 속에서도 내 안식처에만 들어서면 마음이 평화롭다. 편히 몸을 맡기고 기낼 수 있는 공간의 존재는 큰 위로를 가져다준다. 내 지붕이 되어줬던 따뜻한 이불처럼 말이다.

글 자립준비청년 김윤경



그녀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성장에 박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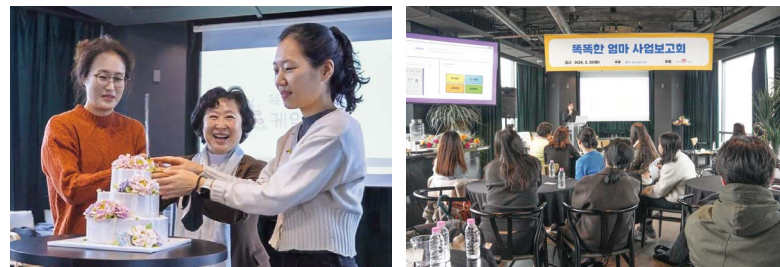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한부모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똑똑한 엄마' 사업보고회 현장 속으로

홀트아동복지회의 '똑똑한 엄마'는 한부모가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학습하여 사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한부모의 자립과 근로역량강화를 돕는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HD현대1%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올해 부터는 우리회의 서울·인천·충청·대구·부산지부와 각 지역 산하시설로까지 대상자를 확장해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전국에 있는 '똑똑한 엄마'들에게는 배우고 싶은 분야의 교육을 마음껏 공부하고,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며 자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똑똑한 엄마'들이 한자리에

지난 2월 20일, '똑똑한 엄마'의 교육·훈련비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사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똑똑한 엄마'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일에 도전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케이크 커팅식과 사례별 성과보고 모습

사업 담당자들의 소감

Q. '똑똑한 엄마'를 담당하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한부모가정의 엄마들은 자립의지가 있어도 자립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으로 무엇인가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똑똑한 엄마'를 통해 한부모들의 강한 자립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이후에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에 도전하는 한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천지부 한미성 지부장

Q. '똑똑한 엄마' 사업 담당자로서 참여소감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A. '똑똑한 엄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들에게 교육 제공뿐 아니라 수익창출로도 연계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들을 때마다 '똑똑한 엄마' 사업의 효과를 실감합니다. 더 많은 홍보와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에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신소희 사회복지사

이날 행사를 위해 '플라워케이크 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엄마는 3단 떡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요. 케이크를 커팅하며 엄마들의 훌륭한 성장을 칭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요가 지도사' 과정을 마친 엄마의 활약 덕분에 사업보고회 중간에 다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잠깐의 휴식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똑똑한 엄마'들은 저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가죽 키링, 목걸이, 천연비누, 룸스프레이, 수제청, 원두커피, 이 모든 것을 담아갈 수 있는 가방까지 깜짝 선물로 준비해 더욱 풍성한 사업보고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 엄마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깜짝 선물세트

사례별 사업 참여자들의 후기

막연했던 플로리스트의 꿈이 현실로



자녀를 돌보며 제 꿈은 접어둔 채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꽃을 보면 행복하고 편안해지곤 했던 저는 '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마음 한편에 늘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품어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꽃이 가득한 정원을 산책할 때 아이도 꽃을 좋아하는 것을 보며 더욱 플로리스트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무렵 '똑똑한 엄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 기초부터 단계별로 초급, 중급, 고급반을 거쳐 창업반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꽃다발, 꽃바구니, 분화상품 등 세심한 손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집에서 기술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꽃이 주는 아름다움과 향기로움 덕분에 교육받는 내내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세금정산방법 등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마치고 이젠 온라인 마케팅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연했던 플로리스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급 가죽공예 지도사 자격증 취득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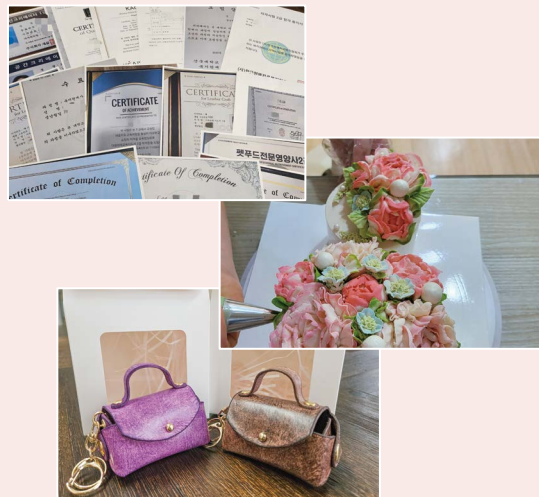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나만의 디자인 창작에 대한 매력을 느껴 가죽공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나도 가죽공예 강사로 일하며 자립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똑똑한 엄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죽공예 지도사 자격 과정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였기에 '똑똑한 엄마'는 제가 본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고마운 사업이었습니다. 나만의 상품으로 가방, 지갑, 열쇠고리 등이 탄생할 때마다 성취감이 생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2급 가죽공예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1급 자격 과정에 도전하여 합격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현재는 강사 활동과 온라인 판매를 위한 판로개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과 미술' 연구소를 갖는 꿈



산림교육전문가, 유아곤충지도사 관련한 교육을 받으며 조금 더 발전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보람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이 직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해야 강점을 살려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숲과 미술'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작은 연구소를 개소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엄마'를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1인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해 더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고 교육개발도 할 생각입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똑똑한 엄마' 사업을 통해 공간크리에이터, 마크라메(서양식 매듭공예) 전문가, 주얼리디자이너, 펫푸드영양사, 복지원예사, 숲해설가, 쌀케이크·쌀브레드 전문가, 천연비누자격증, 아로마테라피, 비건제과, 사회복지사, 유아교육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해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국의 '똑똑한 엄마'들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신 HD현대1%나눔재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한 현실적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박혜정

“뭉쳐야 산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엄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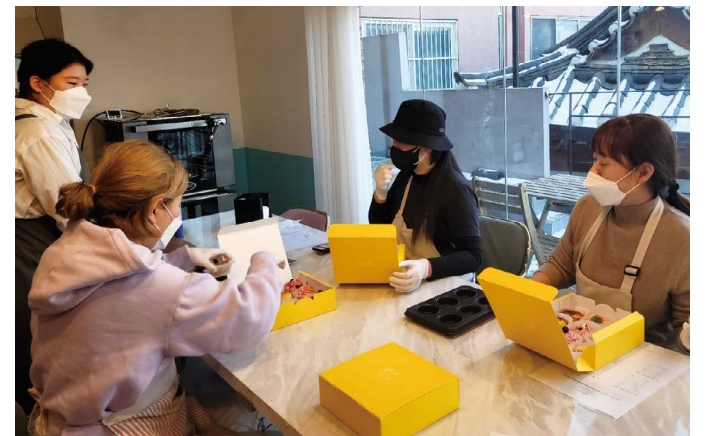
저마다의 개성 살린 한부모 자조모임 6곳의 활동과 성과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곳(고운뜰·아침뜰·대전클로버)에서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는 한부모들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부모지원센터의 H!-Change 정규클래스 베이킹·수공예·가죽공예 교육을 이수한 한부모들의 3개 자조모임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곳의 자조모임까지 6개의 자조모임은 더욱 활발히 활동하며 교육체험 및 역량강화와 관계형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 팀만의 개성을 살린 자조모임 6곳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합니다.

한부모지원센터 베이킹팀 '제과제빵을 사랑하는 사람들'

베이킹 자조모임 '제과제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창업을 꿈꾸는 한부모들의 모임입니다. 이에 베이킹 클래스를 지원하는 '우눅스코리아'의 지사장님에게 창업 관련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베이커리 카페에 방문하여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고 창업 및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부모지원센터 천연비누수공예팀 '버블트리'

천연비누수공예 자조모임은 '버블트리'라는 이름으로 뿔뿔 뭉쳤습니다. 교육을 수강하며 관심을 가지게 된 아로마 체험을 통해 비누와 아로마를 결합한 제품 생산이라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었다는 공통분모로 인해 여러 가족이 어울려 공방 체험, 전시회 관람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돈독한 친구 또는 가족이 되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부모지원센터 가족공예팀 '싱가포르'

가족공예팀 '싱가포르'는 '싱글엄마들이 하는 가족공예팀 포기하지 말고 느려도 완주하는 거북이처럼 힘내자'라는 팀 이름처럼 가족공방을 방문해 실제 운영 중인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며 새로운 제작기법을 체험하고 차근차근 성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간식 만들기', '영화 관람'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우정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고운들 자조모임 '고사리'

'고운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줄임말로, 고운들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니다. 해마다 고운들에서는 한부모들이 '고사리' 모임을 통해 고운들 입소자와 퇴소자 가정이 하나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행사는 해마다 개최하는 연말 송별회와 आय회인데요. 연말 송별회 때는 많은 가정이 참여해 흥겨운 장기자랑 시간도 갖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또 आय회 장소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꼽은 '레고랜드'로 신나는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한부모들은 '고사리' 모임을 통해 고운들에서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서로 안부도 묻고 조연도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퇴소 후 아이와 단 둘이 생활하는 한부모들에겐 팍팍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 잠시 쉬어갈 편안한 안식처와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앞으로 더 알찬 고사리 모임이 되어 고운들 모든 가정이 꿈을 이루는 날이 오길 소망해봅니다.

글 고운들 신제인



아침들 자조모임 '행복한 엄마들의 노래'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들에서는 매년 생명을 지키는 용기 있는 엄마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퇴소 한부모가족이 주축이 되어 올해로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전통 있는 자조모임 '행복한 엄마들의 노래(Happy Singlemom Singing)' 덕분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힐링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정서적 지지 모임에서부터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미혼엄마를 위한 양육집단상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모두가 함께하며 점점 발전해왔습니다.

초기에 10가정이던 회원수도 현재는 120가정으로 증가하였고, 사진, UCC, 수기 공모전, 아동 그림 공모전인 '아침 새싹



그림 공모전'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축제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정이자 마음의 고향인 '아침들'이라는 공통분모로 다함께 가족이 된 '행복한 엄마들의 노래' 회원 모두는 오늘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행복을 노래하며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아침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글 아침들 김미연

대전클로버 자조모임 '서로를 잇다'

한부모들은 단지 미혼엄마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원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클로버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에게 따뜻한 친정이 되어주고자 입소자와 퇴소자를 대상으로 '서로를 잇다'라는 자조모임을 통해 연2회 이상 꾸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잇다'는 평소에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가장의 책임감으로 힘겨워하는 한부모에게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줄 곳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모임입니다.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은 물론, 키자니아 체험, 야구 관람, 서점 나들이 등 모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가족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추억을 공유하며 끈끈한 소속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전클로버는 한부모가정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양육과 생계, 고립감과 편견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각자의 문제해결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한부모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자립 노력과 변화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잇다'를 통해 대전클로버 한부모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글 대전클로버 김지연



‘H!-Change’로 봄처럼 새롭게 피어날 엄마의 첫걸음

홀트보호작업장에서 이루어진 한부모강사의 첫 외부 강의 도전기

‘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새로운 시작, 변화가 생각나지 않나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잡은 홀트보호작업장에서 한부모강사와 함께하는 ‘제리치즈케이크 만들기’ 베이킹 원데이클래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부모의 첫 외부 강의 도전기, 엄마의 첫걸음을 소개합니다.



모양도 맛도 특별한 ‘제리치즈케이크’

이날 만든 케이크는 만화 ‘툼과 제리’의 제리가 좋아하는 치즈모양 케이크입니다. 노란 초콜릿으로 코팅한 틀에 크림치즈로 속을 채워 모양도 맛도 특별한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1983년 설립된 홀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와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판매되는 쿠키와 파이, 케이크는 맛있게 유명합니다. 이곳 작업자들은 이미 베이킹 경험이 있지만, 제리치즈케이크처럼 특별한 모양의 베이커리는 처음 만들어보는 기회여서 한부모강사와 참여자들 모두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누고 싶어요” 나눔의 선순환

이날 베이킹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한 홀트보호작업장 베테랑 작업자 두 분과 원데이클래스 후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초콜릿을 녹이고 바르는 것이 맛있어요. 바르는 게 어렵긴 했어요. 다음에는 카스텔라 케이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직접 만든 빵을 작업장 선생님들께 선물하고 싶어요.”

- 홀트보호작업장 윤명국



“오늘 만든 빵은 아내와 선생님들과 나눌 거예요. 다음에 또 배워서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아내와 함께 만들고 싶어요.”

- 홀트보호작업장 서희목



▲ 강사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듣고 꼼꼼히 따라해보는 참여자들 덕분에 더욱 알차고 즐거웠던 원데이클래스 현장

“오늘 수업은 저에게도 뜻깊은 수업이었습니다. 외부 강의는 처음 경험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보람 있었어요. 참여자들이 베이킹에 경험이 있고 관심도 많아서 맛이나 모양으로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 즐겁게 참여하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올해에는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라 새로운 메뉴 개발과 마케팅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사 '지블레르' 대표

첫 외부 강의 도전, 준비한 만큼 큰 보람

베이커리숍 '지블레르' 대표인 한부모 강사님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첫 외부 강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HOLT 공유공방'에서 내부 강의만 진행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홀트보호작업장 장애인 작업자들과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어 남달랐던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현대홈쇼핑'의 후원으로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H!-Change'를 통해 자립을 위한 교육·수익창출, 공간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이 자립하는 날까지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장애인의 날 기획특집 ①

개성 만점 '우리들의 표정을 수집합니다'

홀트일산요양원 장애인의날 기념 사진전 '우표수집'에 담긴 이야기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홀트일산요양원은 1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모든 이용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90%는 지적장애 1급으로 중증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홀트일산요양원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리는 '우표수집'에 얽힌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용인들의 예쁜 미소를 남겨놓기 위해

홀트일산요양원에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 해에만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지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사망하신 분의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중에 옆모습만이라도 그분의 얼굴이 정확히 나온 사진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담당 사회복지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어렵사리 사진을 찾아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해봤지요. '우리 이용인들의 예쁜 미소를 남겨놓아야겠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홀트일산요양원 이용인들의 여러 표정들을 모두 모아 공유할 수 있는 '우표수집(우리들의 표정을 수집합니다)'을요!

2022년부터 시작한 우표수집 프로그램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매년 200여 장의 사진이 접수되어 그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사진을 선발하여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표수집은 이용인들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단 하나도 똑같지 않은 개성 넘치는 표정들

부끄러운 미소가 담긴 표정, 나들이 가는 차안에서 조는 모습,

만들기 활동 작품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표정 등 단 하나도 똑같지 않은 100여 명의 개성 넘치는 표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이용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이용인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사진도 출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여 다양한 표정의 사진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인과 종사자가 함께하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며 때로는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 어린 감동에 젖어 선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고 기억하도록

자신의 사진이 선정되지 않은 것에 아쉬워하는 종사자와 이용인들을 위해 수집된 사진들을 모두 인화하여 홀트일산요양원 복도에 전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표수집 사진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이용인들은 자신의 사진이 내걸린 것에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홀트상, 버다상, 말리상, 천사상(종사자) 등의 수상자들에게는 함께 생활하는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용한 상품을 증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표수집' 사진전은 매년 꾸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표정들'이 쌓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이용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과 자신의 삶을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용인들의 모습을 모두 모아 공유하고 추억하는 자리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홀트일산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100여 명의 이용인들이 항상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홀트일산요양원 자립지원팀 엄만용

장애인 스포츠의 꽃, 휠체어농구의 주역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소개와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4월 18~20일,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는 '고양특례시장컵 제29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과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실무자들을 만나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의 현황과 어려움 등을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선수들이 휠체어농구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는 홀트아동복지회의 'RE:PLAY'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를 앞두고 맹연습 중

장애인 스포츠의 꽃으로 알려진 휠체어농구. 그만큼 매해 다양한 경기가 개최되는데, 그중에서도 고양특례시장컵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한 해 동안 치러지는 전국휠체어농구대회와 KWBL 휠체어농구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황정희·오기석·오성훈·김홍수·이재건·강재준(위 사진 왼쪽부터) 6명의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 선수들은 정경미 감독의 지휘 아래 너른 농구 코트를 증횡무진 누비며 훈련에 열중합니다.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장인 김재현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장을 비롯해 강형섭 코치 겸 매니저, 노진화·고미선 주무까지 4명의 실무자들은 대회 출전 때마다 선수들의 손과 발이 되어 휠체어 운반에서부터 훈련일정 관리, 휠체어 이동로가 설치된 숙박시설과 식당 섭외, 선수 부상관리, 유니폼 세탁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워크와 조직력 향상에 집중할 계획

올해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에서는 이적과 영입 등으로 팀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형섭 코치는 “올해는 팀원 변동이 있는 만큼 선수들 간 호흡을 맞추는 팀 리빌딩 기간으로 정하고 팀워크와 조직력 향상 및 전술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기존 선수들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편인 데다 교체 선수 없이 풀타임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체력 보강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입니다.

1987년 창단된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은 여러 휠체어농구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에서 성장했고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이자 휠체어농구의 상징인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이 다시 한번 코트 위에서 활기차게 경기를 펼쳐나가기 기대합니다.



▲ 강형섭 코치



휠체어농구가 활성화되고 저변이 확대되려면

휠체어농구를 비롯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휠체어농구가 활성화되고 저변이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형섭 코치는 “휠체어농구대회 등 장애인 스포츠를 자주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방법, 일반 프로 농구 리그를 진행할 때 휠체어농구 경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 체육교과 과정에 휠체어농구 등의 장애인 스포츠를 편제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방법” 등을 제안합니다.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지금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이 창단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요. 팀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선수들과 감독, 코치 등 우리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팀을 잘 운영해나가면 선수들도 더 영입되고 기량도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선수 여러분 힘내시고, 마음을 합해 열심히 해봅시다!”

- 김재현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장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RE:PLAY' 캠페인으로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

한편, 비실업팀으로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선수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팀과 달리 지원이 일정치 않다 보니 노후된 장비 수리비, 재활 치료비, 대회 참가비 등 훈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기업 연계 시스템 지원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생계유지가 어려운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의 'RE:PLAY' 캠페인을 통해 고양홀트 휠체어농구단에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훈련과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부상의 원인이 되는 노후된 경기용 휠체어를 수리하고, 꼭 필요한 의료용품과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실무진. (왼쪽부터 강형섭 코치, 김재현 단장, 노진희 주무, 고미선 주무)

글 홍보팀 정진숙



장애인의 날 기획특집 ③

발달장애인과 이웃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 발랄축제

홀트강동복지관 장애인의 날 지역행사 '홀트발랄축제' 이야기



화창한 봄날, 따뜻한 햇볕과 푸르름이 돋보이는 4월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특별한 행사 준비로 홀트강동복지관 이곳저곳이 분주해집니다. 바로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하게 된 홀트강동복지관의 장애인의 날 지역행사 '홀트발랄축제'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축제

발랄축제는 '발달장애인이 날마다 성장하는 축제'의 줄임말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뜻깊은 지역 행사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는 바람직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과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즐길거리가 있는 발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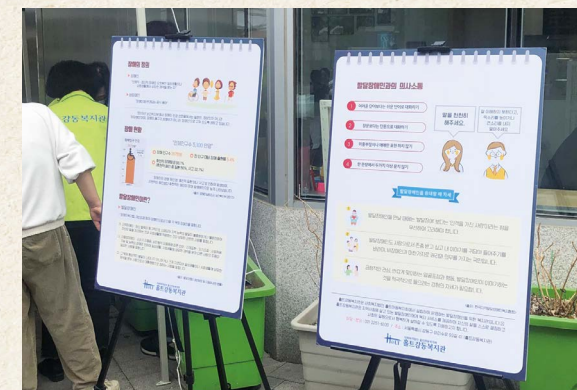
발랄축제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온라인공모전, 발달장애인이 직접 올바른 장애상식을 알려주는 OX퀴즈,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날을 홍보하는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과 권익옹호 캠페인, 착한 소비를 나눔으로 이어주는 바자회 행사 등 발랄축제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제6회 홀트발랄축제' 살펴보기

2024년 4월 19일(금)에 개최된 '제6회 홀트발랄축제'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넓은 야외공간인 서울시 강동구 소재 강일동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6회 홀트발랄축제'에는 다양한 활동과 풍성한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체험마당, 나눔마당, 먹거리마당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퀴즈 및 장애체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 풍선아트, 미술공예, 바자회, 간식부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제정한 근본 취지와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장애 인식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글 홀트강동복지관 기획자원개발팀 신승훈

장애인 일상 속 여행의 기쁨을 전하는 '꿈의 버스'

따뜻한 동행으로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꿈의 버스'가 함께합니다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여행을 꿈꿉니다. 온 세상이 벚꽃으로 만발한 봄에는 친구들과 벚꽃놀이를 떠나고, 뜨거운 햇살이 작렬하는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단풍 우거진 가을에는 한적한 산책길의 여유로움을 누리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에는 아름다운 설경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행이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을 벗어나 누구나 꿈꾸는 여행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꿈의 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여행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

가슴이 땀 흘리는 풍경을 보며 휴식과 재충전을 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저마다 여행을 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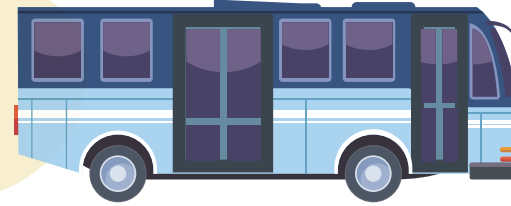
지만, 많은 장애인들에게 여행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데 막상 가려면 선뜻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의 장벽과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꿈의 버스를 통해 고양시 장애인과 가족들이 문화·역사·생태·전통 등 다양한 경험을 어떤 제약이나 불편함 없이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나들이와 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전동휠체어 때문에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던 은형씨(가명)는 평생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바다여행을 꿈의 버스를 통해 다녀온 후 "처음 가본 바다여행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큰 감동이었습니다"라는 후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도우미, 꿈의 버스

꿈의 버스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들의 여행 지원뿐 아니라 고양시 관내 장애인 기관, 특수학급, 자조모임 등의 이동도 지원합니다. 특히 꿈의 버스를 운행하는 배려심 많은 기사님 덕분에 각 여행지로의 이동과 관람이 편리했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해주셔서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버스기사님께서 시간 약속도 잘 지켜주시고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나들이 행사 때 활동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꿈의 버스 기사님이 이미 운행 경로를 다 파악하고 계셔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었고, 이용자와 가족들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참여자 모두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장애인 학생들이 편안하게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복지가 일상으로!

꿈의 버스 이용자분들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후원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여행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TV와 책에서만 보던 유적지, 수목원 등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의 버스는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동행 덕분에 이용료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꿈의 버스는 혼자가 아닌 같이 해야 누릴 수 있는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으로 일상이 더 행복해지는 '꿈의 버스'를 통해 장애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일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고양시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든든하고 편안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 송미경

따뜻한 관심으로 '꿈의 버스'와 동행해주세요. 함께해주신 후원금은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여행경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체험형 환경교육 '다시, 그린(green) 지구'

아동·청소년과 함께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환경교육 이야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년부터 아동·청소년 체험형 환경교육 '다시, 그린(green) 지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가 지원하는 이 사업에 총 663명이 참여하여 환경보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형성과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환경보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함께한 다양한 환경교육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EM 흙공으로 실천하는 건강한 하천 만들기

EM 흙공으로 실천하는 건강한 하천 만들기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하천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EM 흙공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EM 흙공은 하천의 유해 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환경보호 실천방법 교육을 들은 다음, 옹기종기 모여 앉아 EM 발효용액을 넣은 황토흙을 둥글게 빚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EM 발효용액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찡긋거리게 했지만 환경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모두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하천의 물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천 이곳저곳에 준비한 EM 흙공을 던지며 환경보호의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비건으로 실천하는 지구환경 지키기

환경보호를 위한 채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육식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발생시켜 지구환경을 위협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식품에 대해 알아보고 비건 요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콩불고기월남쌈, 비건 초코머핀, 비건 유부초밥 만들기 등 환경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작은 실천에 함께했습니다.



▲ 비건으로 실천하는 지구환경 지키기

지구를 살리는 환경교육

기후위기를 주제로 '탄소중립 보드게임'과 '지구를 지키는 생각 키우기' 독서논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탄소를 배출하는 요소(+)와 탄소를 저감하는 요소(-)가 같을 때 종을 치는 탄소중립 보드게임을 통해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지구를 살리는 환경교육

환경사랑 숲속 놀이터

아이들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경험해보기 위해 숲속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열심히 뛰어는 아이들은 나무가 만들어준 시원한 그늘과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기분 좋게 땀을 식혔습니다. 나무에 줄을 걸어 그네타기, 외줄오르기, 해먹과 로프 사다리 오르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자연이 베풀어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산할 때는 "나무야! 고마워" 인사하며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 환경사랑 숲속 놀이터

재활용을 통한 버려지는 것들의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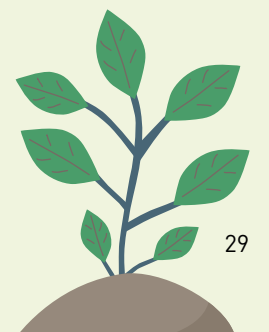
버려지는 것들에 가치를 더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자투리 가죽공예, 양말목 공예, 우유팩 카드지갑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상품 제작 후 버려지는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 소품 제작은 아이들의 정성까지 더해져 멋진 나만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활동을 통해 무심히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 재활용을 통해 버려지는 것들의 재탄생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다시 그린 지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탄소중립의 실천 의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장 박현정



“아름답고 따뜻한 요리로 워킹맘들이 마을을 누벼요”

다재다능한 ‘아.따.맘.마’ 그녀들을 소개합니다!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사회 재진출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아동요리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참가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린 것은 물론, 따뜻하고 맛있는 요리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아리 ‘아.따.맘.마’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요리로 행복을 전하는 그녀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 취득반에서 만난 그녀들

최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경제적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나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진 기혼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관이 위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주변은 신혼부부나 젊은 연령층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경력 단절 상태에 놓인 기혼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서구청의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아동요리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반’은 기혼여성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메뉴와 레시피 개발에도 열심인 ‘아따맘마들’



◀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제빵 프로그램 강사 활동

강사 활동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그녀들

아따맘마 회원들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점차 역량이 성장하여, 현재는 우리 복지관의 주요 프로그램 강사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7개 프로그램에 요리 관련 강사로 섭외되어 사회 재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활동한 아따맘마들은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요리의 전통을 알리고 요리하는 재미를 선사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아따맘마 회원들 역시 강사로서 더욱 성장하고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몇몇 아따맘마 회원들은 외부 기관 강사로도 섭외되는 등 활동 범위를 더 폭넓게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메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솜씨있는 그녀들이 개발해낸 메뉴와 레시피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서 잠깐 그녀들만의 대표 메뉴를 간단히 소개하면 파크래커, 썬파운드케익, 다쿠아즈, 오색강정 등이 있습니다.



따뜻한 요리로 지역사회의 나눔천사가 된 그녀들

아따맘마 회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나눔활동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본리동 지역의 취약계층 홀몸어르신에게 정성껏 만든 퓨전요리와 빵과 과자 등을 직접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직접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주고 고운 목소리로 요리에 대해 설명도 해줘서 늘 기다려진다”는 어르신들! 그 마음을 알기에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해마다 열리는 지역의 마을축제에도 재능기부자로 참여해 체험부스를 열고 아이들에게 요리하는 재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사회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꾸준히 성장해가는 아따맘마의 활동 덕분에 많은 기혼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 또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아따맘마들, 2024년에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비롯하여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글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 정지윤



▲ 기술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활동



▲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준비 중인 ‘아따맘마들’

네팔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보호자, 친구가 되어주는 홀트드림센터

네팔 코카나 지역 홀트드림센터 겨울캠프 소개와 참여 후기



네팔은 UN에서 지정한 최저개발국(LDC) 중 한 곳으로, 2015년 대지진을 겪고 그 아픔이 회복되기도 전 코로나19와 두 차례의 지진을 더 겪으며 여전히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건강히 자라나고 보호받아야 하기에 홀트아동복지회는 2019년부터 현지의 NGO와 함께 네팔 코카나 지역의 만 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을 보육 및 교육하는 사업과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우리만의 겨울캠프!

네팔 홀트드림센터에서는 매년 1월, 방학을 맞아 약 열흘 동안 겨울캠프와 학예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90여 명 중 60여 명의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홀트드림센터에 모인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연령별로 나누어 즐거운 게임도 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직접 준비한 연극과 노래, 춤 등을 뽐내며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방과 후 교실에 참석 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홀트드림센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주제로 모든 연극을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떨리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랜 시간 함께한 선생님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멋지게 해냈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선물도 빠질 수 없죠! 연필과 펜, 색연필, 필통 등의 학용품 세트와 축구공 등 홀트드림센터 선생님들의 애정이 담긴 선물이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홀트드림센터는 선생님이자 보호자,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홀트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만약 홀트드림센터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마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보호자의 일터 한 곳에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어쩌면 홀로 집에서 하염없이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홀트아동복지회는 국내를 넘어 해외의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홀트드림센터가 좋아요”

최근 네팔 홀트드림센터 5주년을 맞아 사업 평가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속에는 홀트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의 후기도 담겨 있었는데요. 그중 두 아이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9학년 Rupen Kapali입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고 홀트드림센터에 와서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매일 드림센터에 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숙제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기타를 배우는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번 겨울캠프에서는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홀트드림센터에서 공부 말고도 체육활동, 연극,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선물도 받고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일파티도 정말 좋아해요. 작년에는 홀트드림센터 선생님과 글씨체 연습을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답니다.

저는 8학년 Pari Maharjan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 숙제를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웠어요. 홀트드림센터에 온 후부터 공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점수가 많이 올랐답니다.
홀트드림센터에 오기 전에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어서 선생님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제 기분이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센터 선생님들,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소풍 가는 것을 좋아해요. 작년에는 자기보호(방어)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폭력적인 상황에서 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어요.

착한 가게 사장님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홀트패밀리#'

중소상공인 참여 캠페인 홀트패밀리#에 10년 동안 참여해온 김태훈 사장님과의 만남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입양대기아동, 꿈을 이루고 싶은 저소득가정 아동,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 등 지금도 우리 곁에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착한가게 사장님들은 홀트패밀리#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홀트패밀리# 캠페인은 뜻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금까지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홀트패밀리# 광고 영상을 송출하여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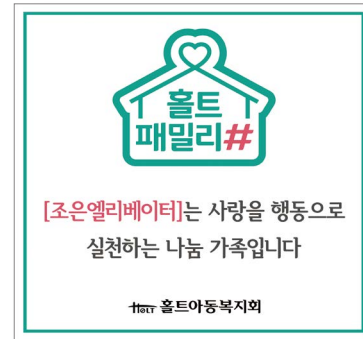
우리 동네 '홀트패밀리#'을 소개합니다.

'조은엘리베이터'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공사 업체로, 지역 사회에 안전하고 편안한 엘리베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위기가정아동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조은엘리베이터'의 김태훈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Q. 어떤 인연으로 '홀트패밀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저희 '조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및 카리프트, 주차설비 신규 공사 및 유지보수관리 전문 업체입니다. 기술 축적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리 및 공사를 의뢰한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처음 알게 된 건 2015년 홀트아동복지회 건물의 승강기를 수리하러 갔을 때입니다. 그때 중소기업인 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홀트패밀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10년 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나눔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인이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나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어느덧 10년이 흘렀네요.

Q. 아이들을 향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사장님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은 저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나눔에 진심인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여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홀트패밀리#은 일반매장,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어린이집 등 규모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착한 가게 사장님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홀트패밀리#을 통해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더 큰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글 나눔기획팀 황태우



'홀트패밀리#'은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는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후원 신청 바로가기



팬들의 나눔활동으로 더욱 확산되는 팬덤 기부문화

1) 든든한 팬클럽으로 빛나는 ‘올해의 기부스타’ 영탁

아이돌차트는 팬들에게 음악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최신 음악 정보부터 순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매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TP포인트를 모금하여 적립된 후원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팬들은 아이돌차트를 통해 음악을 즐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주셔서 더욱 값진 상”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가수 영탁의 팬들은 매월 아이돌차트를 통해 적립된 TP포인트를 영탁의 이름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아동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팬들의 꾸준한 후원 덕분에 가수 영탁은 ‘2023년 올해의 기부스타’로 선정되어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감사의 뜻이 담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가수 영탁은 “이 트로피는 아이돌차트를 통해 기부해오신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로 전달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늘 기억하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확산에 앞장서는 가수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음악으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나눔

가수 영탁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의 팬들이 매월 아이돌차트를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팬심이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이어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차트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며 위기가정아동에게 희망을 전달해주신 모든 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글 나눔기획팀 황태우

2)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 진해성 팬클럽 ‘해성사랑’ 후원 이야기



‘팬클럽 후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팬덤 후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팬클럽 후원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는 팬들의 나눔 활동을 말합니다. 가수 진해성 공식 팬클럽 ‘해성사랑’도 2022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며 팬덤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타의 이름으로 더욱 의미있게

지난겨울, 가수 진해성 팬클럽 ‘해성사랑’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홀트아동복지회에 방문했습니다. 해성사랑 회원 14명은 위기가정아동 후원금 전달과 더불어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북커버 만들기 디어패밀리박스3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성사랑은 2022년 겨울, 네이버 기부플랫폼 ‘해피빈’ 모금함



공기부를 계기로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북커버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여러 팬분들과 함께 진해성 가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우리회 정기후원자로 함께하고 있는 해성사랑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N주년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성사랑에서 전달해준 후원금과 봉사활동 참여 기금은 위기 가정아동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스타의 이름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해준 해성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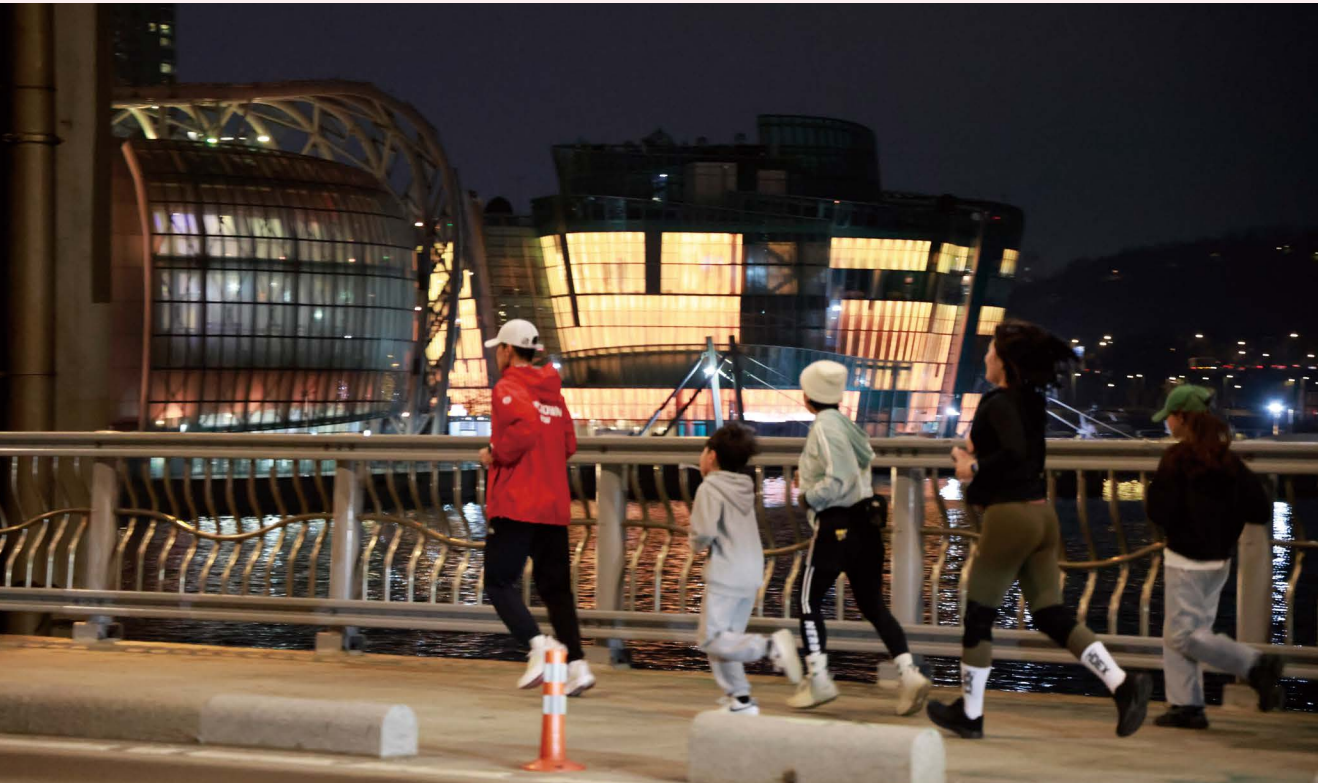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나눔 활동을 찾고 있다면?

한편, 디어패밀리박스3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은 책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북커버처럼, 위기가정아동의 북커버가 되어 아이들을 보호하고 응원하는 의미를 담은 ‘핸즈온(Hands-on)’ 봉사활동 캠페인입니다. 기업, 동아리, 학교, 개인 등 봉사활동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활동을 찾고 있다면, 디어패밀리박스3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나눔기획팀 박호진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름다운 달리기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선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이모저모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발렌타인데이’, 여러분에게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이날, 좀 더 의미있는 일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기부런’에 참가한 분들인데요, 이날 진행된 ‘기부런’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한부모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

지난 2월 12일과 14일, 선 홍보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홀트아동복지회의 한부모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세빛섬 앞 광장(서울시 한강 반포대교 남단)을 출발하여 2.14km와 4.28km 구간 중 한 코스를 선택해 달리며 한부모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한부모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홀트아동복지회로 기부되었는데, 선 홍보대사는 모금된 후원금 214만 원에 214만 원의 후원금을 더하여 총 428만 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2007년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과희망지원사업’ 후원을 시작으로 17년째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어온 선 홍보대사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행사뿐 아니라 한부모의 자립을 응원하는 ‘맘스 페스타 플리마켓’ 토크콘서트에서도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참가자 소감

“저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혼자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부라는 의미있는 일도 하면서 저의 취미도 즐길 수 있으니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몸소 나눔을 실천하시는 선님께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저희 회사는 대표님이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원해주셔서 봉사활동 참여가 일상이에요. 직원들이 기부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해 주시거든요. 제가 낸 참가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전히 기부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작은 활동에도 세심하게 마음 써주시는 가수 셉씨를 보면서 나도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치를 더한 달리기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한편, 선두에서 러너들을 이끌며 달린 선 홍보대사는 “발렌타인데이가 성인 발렌티누스를 기리고, 연인 사이에 사랑을 고백하며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발렌타인데이 기부런은 거기서 더 나아가 달리기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기부도 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한 달리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렌타인데이 기부런’ 행사는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진행되었는데, 선 홍보대사는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에게 본인의 사인을 적은 페레로로쉐 초콜릿과 파워에이드 음료를 선물로 나눠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글 홍보팀장 오진희

어머니의 가장 아름답고 빛났던 순간을 본받고자

홀트아동복지회 전국·서울후원회 최명신 회장의 대를 잇는 나눔스토리



1월 10일,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후원회 주최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는 최명신 신임 전국·서울후원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최명신 회장을 고객후원자 탐리더스에 위촉하는 순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1인 가전제품 지원에 뜻을 함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한 최명신 회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나눔을 통해 삶의 올바른 가치를 배울 수 있고, 나누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 감사할 뿐”이라며 “전국·서울후원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2019년 서울후원회 몽골 홀트드림센터 봉사활동.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최명신 회장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홀트아동복지회에 신뢰를 갖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서울후원회장으로서 12개 후원회가 가정과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 최명신 회장 가족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서화자님, 오른쪽 첫 번째가 최명신 회장

35년에 걸친 어머니의 나눔과 봉사활동을 보며

최명신 회장은 2016년부터 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후원회원이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머니 서화자님의 추천이었습니다. 올해로 84세인 서화자님은 1980년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울후원회원으로 적극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최명신 회장은 어머니로부터 후원회 활동을 제안받았을 때 “봉사할 상황이 되었을 때 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나눔과 봉사를 조건과 상황이 갖춰진 다음에 하려면 시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한 최회장은 서울후원회원으로 7년간 활동하였고, 올해 홀트아동복지회 전국·서울후원회장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최 회장은 어머니의 봉사와 후원회 활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봉사와 후원만큼 보람과 기쁨을 얻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눔을 실천할 때가 어머니가 가장 아름답고 빛났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가 집안사정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시간도 돈도 부족한데 1남 6녀 7남매를 돌보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시느라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때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소회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후원회 활동을 해보니 어머니가 이해되었습니다.”



‘나눔’은 나를 채워가는 일

최명신 회장은 어머니의 모습처럼 후원회 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하셨듯 봉사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후원회 선배님들은 저의 롤 모델입니다. 지혜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이 저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세워진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단단한 초석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전국·서울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주신 최명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

우리 사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재능후원자 우유경 '하루에코' 대표의 10년에 걸친 나눔 이야기



홀트아동복지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생일이나 결혼 등 기념일에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한 후원' 참여자들에게 작품을 제작해주는 재능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작나무와 아크릴로 기념품을 제작하는 우유경 '하루에코' 대표인데요. 우유경 대표를 만나 특별 재능기부 10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홀트와의 인연

“후원금만으로 후원했다면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2014년 어느 날, 우유경 '하루에코' 대표는 의미를 담아 만든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연락하였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우유경 대표는 홀트아동복지회 '특별한 후원'에 참여하는 후원자를 위해 자작나무 수제액자 및 감사패 제작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유경 대표는 재능후원으로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한 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기간 재능후원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우유경 대표는 “제가 끈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든 한번 시작하면 오래가요. 더욱이 좋은 기회로 맺어진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인연 덕분에 꾸준히 재능후원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후원금만으로 후원했다면 아마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좋은 기회로 맺어진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인연 덕분에 꾸준히 재능후원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경력단절을 극복한 '하루에코' 우반장

우유경 대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표라는 직함 대신 '우반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아크릴과 자작나무를 활용한 소품 디자이너로서 '하루에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자녀의 어머니인 우유경 대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재주가 남달랐던 우 대표는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블로그를 통해 리폼 제품 제작과정을 소개하며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9년 본격적으로 우반장만의 '하루에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우유경 대표는 현재의 '하루에코'가 되기까지 20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업실 운영을 중단한 채 빛을 갠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코'를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홀트아동복지회를 돕는 후원자들을 위해서만큼은 작품 제작을 지속했습니다. '하루에코'를 다시 찾아주는 고객들 덕분에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유경 대표는 저출산 시대,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은 고객은 2013년



▲ 하루에코 우유경 대표(왼쪽)

부터 네 자녀의 출산 때마다 하루에코에서 텃줄보관함을 의뢰한 분으로, 그분의 진심 어린 후기 덕분에 누군가의 소중한 날을 기념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유경 대표가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이유도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의 삶에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나누며 살아가요!

“우리 사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성공하려고만 하기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나눔이란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아동과 어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우선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누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 대표는 특별한 후원자님들이 나눠주는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는 말에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축하하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기념일 기부 '특별한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머시 하루에코'를 검색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특별한 순간을 담은 우유경 대표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부



서울후원회 신년하례식 실시

1월 10일, 서울후원회 주최로 신년하례식이 실시되었습니다. 신년하례식은 서울후원회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98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힘이 되어주신 서울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1 '케리아' 류민석 선수, '꿈과희망지원사업' 후원

1월 22일, T1 리그 오브 레전드(롤) 팀의 '케리아' 류민석 선수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과희망지원사업'을 위해 후원금 2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류민석 선수가 전해준 후원금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꿈동이 여름캠프'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래 꿈나무를 응원해준 류민석 선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본부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드림틴즈' 오리엔테이션 실시

3월 9일,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드림틴즈(DREAM-TEENS)'의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박 7일간 캄보디아 트라피앙 안찬의 홀트드림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캄보디아 아동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부



아이젠트리안경 수영점,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실시

3월 7일, 아이젠트리안경 수영점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아이젠트리안경 수영점의 신규 개장을 기념해 받은 쌀 화환을 기부한 데 이어, 아이젠트리안경 본사에서 아이젠트리 수영점의 뜻에 함께하며 쌀 1,000kg을 더해 더욱 풍성한 전달식이 되었습니다. 전달받은 후원물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안주, 아동·청소년 후원

1월 31일, 주식회사 안주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안주는 2017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연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아동의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통합적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안주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런런 챌린지 4기 오리엔테이션 실시

3월 9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런런 챌린지' 4기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20명의 지원 대상자들은 인문학·공학·보건의료·예체능·요식·기계·정비·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10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직업 훈련비와 생활비, 심리상담,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지부



위기미혼모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실시

3월 4일, 지역 내 산부인과 6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곳, 양육키트 제작업체 1곳과 위기미혼모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인 미혼모 가정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키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미혼모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용기있는 엄마라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지부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홀트 작은음악회' 열려

1월 25일, 충청지부에서는 대전시립교향악단 앙상블과 함께하는 '홀트 작은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현악 4중주 및 목관 5중주를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했고, 참석한 홀트 가족들은 앙상블 연주와 함께 재미난 곡해설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2부 순서로 홀트의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된 '다해퍼블리코러스' 합창단이 '가족', '꼭 안아줄래요'를 불러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홀트강동대학 제4회 학생회 선거 실시

2월 4일, 홀트강동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홀트강동대학'에서 제4회 학생회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실제 선거 과정을 적용, 출마선언과 입후보 등록을 거쳐 진행된 이번 2024년 학생회 선거는 9명이 출마해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실제 투표부스에서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재투표까지 진행된 결과,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2024년 홀트강동대학 학생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24 홀트아동복지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1월 17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꿈을 지원하는 홀트아동복지회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57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1억 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습 및 특기 적성 계발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파라다이스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설맞이 효드림 행사

2월 6일, 파라다이스복지재단과 함께 설맞이 효드림 행사를 가졌습니다. 560만 원 상당의 떡국과 명절선물세트를 지원한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의 임직원들은 직접 떡국과 반찬을 포장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떡국과 명절선물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도 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이용자들에게 직접 떡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부산 W아너소사이어티 설 명절 미니 차례상 전달

2월 6일,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복지관 대표 등 이 지역 내 홀몸어르신 및 조손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산 아너소사이어티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부산 W아너소사이어티의 기탁금 480만 원으로 구매한 19가지 종류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하나하나 포장하여 홀몸어르신 10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홀트학교



사랑과 희망의 첫걸음 2024 홀트학교 입학식 열려

3월 4일, 홀트학교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3명, 전공과 14명 등 총 55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재학생들의 모듬북공연과 오케스트라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입학식에서는 뉴비전교회가 모범학생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참석한 모든 내빈이 학생들과 함께 '미운 오리 날개'를 부르며 입학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아침들



온누리교회 봉사단의 재능기부 집밥 제공

3월 8일, 대전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아침들 가족들에게 맛있는 집밥을 지어주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재능기부로 참여한 성도들은 하루 동안 한부모들의 친정엄마가 되어 그들이 원하는 메뉴로 집밥을 지어줍니다. 아침들 가족들은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 먹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벌써 5년 넘게 이어진 집밥 후원은 입소 가족들의 건강 유지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뜰



키즈펜션에서 가족캠프 실시

2월 19~20일 1박2일간, 키즈펜션으로 아름답 가족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동용 전동차, 온수풀, 트램펄린 등 다양한 놀거리가 가득한 곳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육아로 지친 한부모 엄마들도 아이와 함께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놀이로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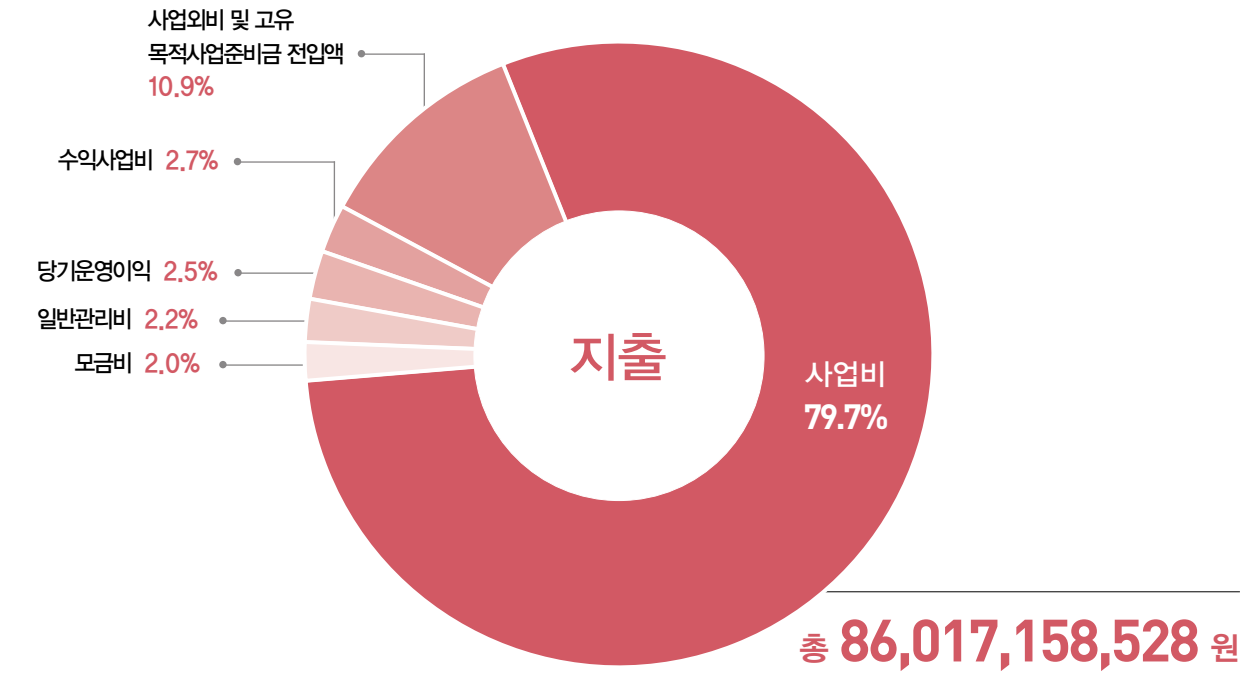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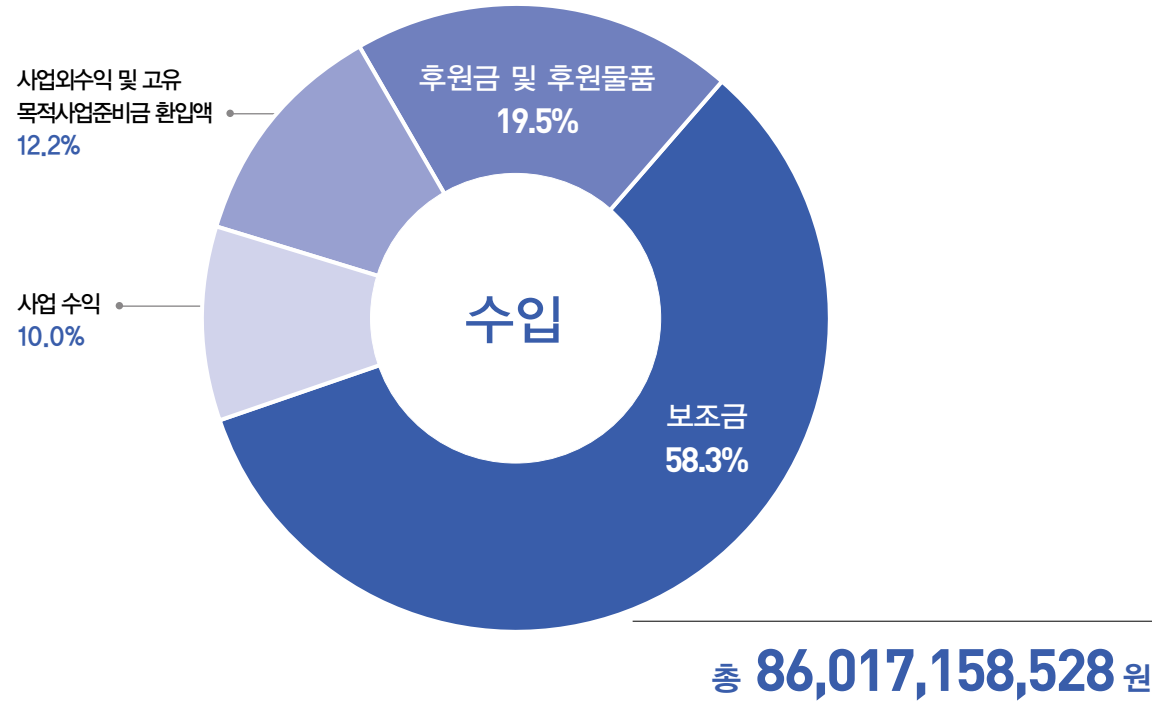
춘천시가족센터



지역특화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식

2월 28일, 지역특화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참여자 29명의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시가족센터는 2023~2025년 2년간 가정방문 파견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특화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생아 관리를 위한 전문직업인 양성교육 실시로 춘천시의 저출산 지원 및 여성들의 재취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운영결산보고



구분	내용	금액	단위: 원
사업비	국내사업 및 국제개발 협력사업 진행 등	68,557,337,989	
세부내용	아동·청소년복지	국내·외 아동, 청소년의 양육, 의료, 자립 지원 등	10,797,109,608
	장애인복지	장애인 재활, 치료, 자립 지원 등	24,945,897,695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지원, 사례관리 지원 등	17,233,076,673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생계, 아동 양육, 자립 지원, 거주시설 지원 등	2,661,351,228
	가족복지	가족복지 지원 등	1,312,086,423
	보육·교육	장애인 특수학교, 어린이집 지원 등	11,607,816,362
모금비	모금 기획 및 관리 운영, 후원 서비스 제공 등	1,732,269,608	
일반관리비	사업 기획 수행을 위한 운영 관리비 등	1,898,143,021	
사업외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사업외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	9,398,911,672	
수익사업비	수익사업 운영 등	2,341,898,127	
당기운영이익	당기운영이익	2,088,598,111	
합계		86,017,158,528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5항(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제50조 3항(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에 따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고 있습니다.
- 연1회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으며 투명한 회계관리 및 성실한 사업보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정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해외후원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해외 빈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4개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결연후원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국내·외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고액후원

다양한 기부활동과 봉사료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가 되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합니다.

기업후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기부, 지원사업 공동기획, 임직원·고객 참여 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교회후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합니다.

특별한 후원

생일, 첫돌, 결혼, 취업, 출산, 팬덤 등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후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선인장 텀블러

홀로 서야 할 자립준비청년에게 기댈 어른이 되어주세요



HOLT 홀트아동복지회



카메라로 스캔하여
캠페인 확인하기

세아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



세아로부터 세상의 아름다움은 시작된다

든든하게 지탱하는 기둥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나르는 파이프로
실새없이 움직이는 엔진으로
흔들리지 않는 작은 볼트로

세아는 철강제품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SēAH